

# 서구 중심주의, 자기 정체성으로 극복하기

강정인의  
《난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



《난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 강정인 외 지음 | 책세상 | 274쪽 | 값 15,000원

●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 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을 열고 책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인디고서원을 열고 1년 반 동안 참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 기자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은 껍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자발적인 사유와 행동을 할 때, 그런 순간을 볼 때입니다.” 질문이 짧고도 명쾌해서 저도 간결하게 대답했지만, 어찌면 제 대답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에 대한 사유가 비판과 반성 없이 대상을 지향하는 욕망이나 욕구로만 나타나는 현실에서 자기를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개인은 자기 주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타자에 의해 억압받지 않는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 그리하여 모든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공존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향하여 용기 있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일 때는 더욱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김구, 사르트르, 간디, 에드워드 사이드, 최근에는 아룬다티 로이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영어를 배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EBS의 다큐멘터리 〈PAX ASIANA-너의 작은 손〉에서 본 파키스탄 소녀 부시라도 살아남기 위해 하루 12시간 카펫 짜는 노동을 하고 우리 돈으로 하루 300원을 받습니다. 《국경 없는 마을》의 안산 원곡동 외국인 노동자 마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초리가 프레스에 잘려 나간 오른손을 붕대로 칭칭 감고 무거운 짐을 밤낮으로 나릅니다. 모두 “살아남기 위해”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말입니다.

《난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의 저자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썼던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학술서를 8년에 걸쳐 집필했다고 합니다. 전작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향한 집요한 관심과 학제적 연구 성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이어 출간한 《난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학술서를 접하기 부담스러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 진지하면서도 쉽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저서라 여겨집니다. 동시에 공동필자로 참여한 대학생들의 육성이 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생동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우리 안에 내재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굳이 학생들에게 사이드의 ‘오리엔

탈리즘'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 책은 유럽중심주의나 문화제국주의의 침략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학생들은 책 6,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 극복에 대한 저자의 제안에 흡족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자의 '혼용적 담론 전략'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 여겼지만 '비서구 문화와 서구문화를 자신에 맞게 혼용시켜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것' 또는 저자가 다른 저서에서 밝힌 '지구주의와 지구적 차원의 민주화', '다중심적 다문화주의나 전통의 현대화'와 같은 주장은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간과한 이론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계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담론', '한국학에 관한 재조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거기에는 한·중·일이라는 동북아 3국의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또 다른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은 아시아권의 또 다른 문화지배와 다르지 않다고 자성하고, 가수 비의 뉴욕공연을 보도한 한국 저널리스트들의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하며, 또 한국에서는 하인즈 워드 같은 혼혈인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똑똑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자의 제안은 한없이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메일로 저자에게 질문도 하고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서구중심주의. 하지만 그들이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우리 보다 부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영어를 배울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경제력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우리 문화 전반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라는 무기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의 사고는 바뀌어야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1 김유리)

"그동안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업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류라는 현상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문화 역량 역시 대단히 진전하고 있습니다. 서구중심주의가 경제적 빈부, 군사적 강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극복은 경제적 부, 정치적 강성함과 아울러 문화 역량의 신장을 필요로 합니다.(중략)

이제 우리의 경제력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으로부터 독립된 문화적 역량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월드컵 열기, 미군 탱크 사건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촛불 시위 등은 한국인들이 점차 민족적 자존의식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근대화 세력이 맹목적으로 서구를 추종했다는 식의 일방적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임무를 그 정도에 국한시키고, 그들의 업적 위에 우리가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온건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의 말미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 및 미운 오리새끼에 대한 해석은 그 점에서 흥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저자 강정인)

그러나 다시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더욱이 "문화적 역량의 신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민족 문화중심주의나 타민족 배타주의의 태도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겠지요? 혹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맹목적인 전통 추종자나 혼해빠진 민족주의자가 될까 걱정이 큼니다.

다시 자기 정체성 문제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할까 합니다. 《박흥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어가 세계의 불평등한 지배구조를 뒷받침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 외국어학습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영미인이 독창적인 발명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외국어학습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독창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영어 지배에 의한 영어 학습의 강제가 초래하는 비영어 사용족에 대한 심리적,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38쪽)"

그래서 아이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반성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혼돈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시집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의 《고든박골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골라 와서 친구들과 함께 목청 높여 읽을 때, 아이들 입이 왜 귀에 걸려 킁킁 웃음이 나고, 노래처럼 읽어대는지 그건 저도 모를 일입니다. **출판**